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3. 18(수)

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 (일일 소비량 8배) 긴급 도입 확정

- 비상 상황시 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 공급키로 약속 -
- 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 합의 -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15~17일간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하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하여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다. 추가로, 납사를 적재한 선박 1척이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한 점에서 금번 특사단 방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사무관	박성배 (044-203-5216)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사무관	강호건 (044-203-5721)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과 장	양정화 (044-204-5220)
		사무관	장선화 (044-203-52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